



즉시 배포용: 9/10/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9/11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기 계양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01년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3,000명에 육박하는 남녀노소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9월 11일 금요일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계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월 11일 테러 공격이 있었는지 14주년이 됨에 따라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3,000여명의 분들을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분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버지였고, 형제, 자매였고,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던 직원이었고,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생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우러 간 응급구조자였습니다."

"이분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뉴욕주민들에게 미육군 대원들의 용감함과 희생정신을 기리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뉴욕주와 미국이 기반으로 하는 자유와 이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나깨나 자신의 안전을 무릎쓰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썼던 분들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